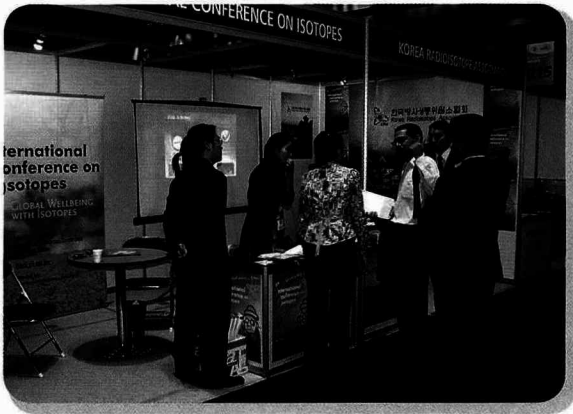


## ● 협회 동정



< 협회 및 6ICI 홍보부스 운영 >

및 향후 발전계획을 모색하고(Tian Jiahe 중국동위소  
여복사행업협회 고문, Shigenobu Nagataki 일본방사

성동위원소협회 상무이사, 김종경 한국방사성동위원  
소협회 이사), “한중일 협력회의의 목적 및 역할”이란  
주제 발표(강건욱 국립암센터 박사)를 통해 3국 협회  
의 국제협력체제 도모 및 실질적 결속방향을 제시하  
는 등 향후 협력방안을 개진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한중일 3국 외  
필리핀, 태국, 타이완 등의 패널들과 함께 아시아의  
협력체제를 도모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한중  
일 협력회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  
띤 토론도 진행되었다.

우리협회는 동 대회기간 중(10월 22일~26일) 코  
엑스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부스운영을 통해 협회 주  
요사업과 6ICI개최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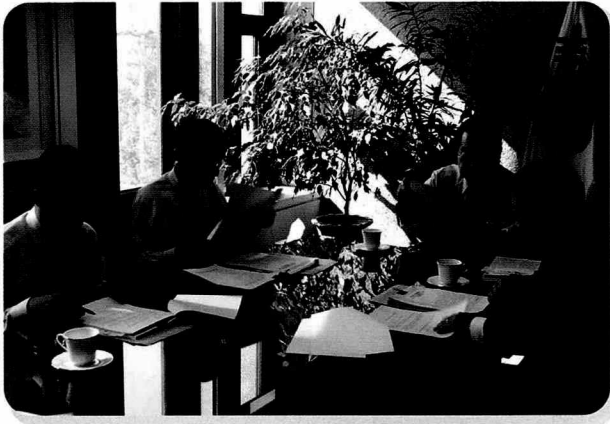
###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채화목)가 10월 11일  
(수)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폭관리비용 청구 개선(안)에 대한 심의와 제2차 협  
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경과 등 4건의 보고가 있었다.

피폭관리비용 청구 개선(안)에는 그간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동 비용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으며, 아울러 보고된 제2차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협회의 발전방안  
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회원권익강화 및 협회기능향상  
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금년내 종합구성  
을 마치고 내년 2월경 이사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제4차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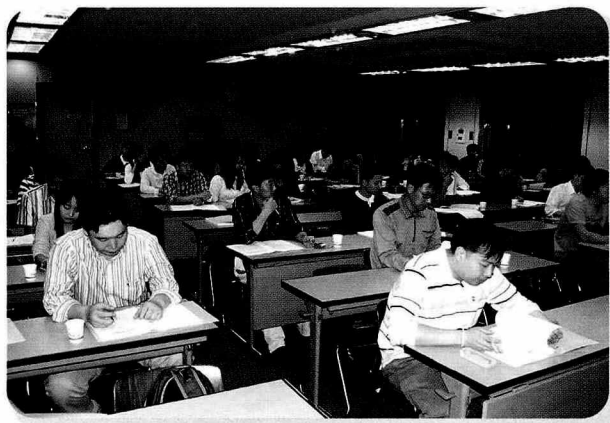
제4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채화목)가 10월 12(목)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동위원소회보 가을호(제21권 제3호) 발간을 위한 원고 감수와 겨울호 제작구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가을호 법령코너에는 해외 원자력관련 법령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일본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미국 및 EU 등의 관련법령을 차례로 연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겨울호에는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생산현황에 대한 특집원고를 비롯하여 제9차 세계핵의학학술대회 및 2006년 아시아·오세아니아방사선방호 국제학술대회 후기 등에 대한 원고를 수록하기로 하였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10월 중 서울, 대전 및 충남, 전북 지역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종사자 및 기존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10월 10일(화)~12일(목) 당 협회/신규 ▶17일(화)~18일(수) 당 협회/기존 ▶17일(화)~18일(수) (주)휴비스-전주공장/기존 ▶19일(목)~20일(금) LG대산유화-서산공장/기존 ▶30일(월)~31일(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존 등이 실시되었다.

우리협회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장거리 출장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수강생(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방사선피폭선량보고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는 「방사선피폭선량보고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10월 9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피폭방사선량 보고대행 업체인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한일원자력(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등에서 참석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보고 형식 통일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북한 핵실험 관련 과학기술부차관(박영일)브리핑발표문” 중에서 - 환경방사능 감시 및 핵실험 탐지장비 관련 -

과학기술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자력 시설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대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등 전국 38개소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을 통해 전국토의 방사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 ○ 환경방사능 감시 및 조사·분석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날부터 방사능측정소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국의 환경방사능 감시 태세를 갖추고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중에도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10월

8일 핵실험시 방사능누출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하는 등 방사능감시 강화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즉시 환경방사능 감시망 감시주기를 단축하고, 대기·지하수·해수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는 위기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환경방사능감시망 및 방사능 방재시스템 비상가동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환경방사능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대비태세를 신속히 알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핵실험 5시간만에 방사능 탐지기와 장비도 없으면서 남한지역에 방사능 검출이 없다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